

체육인 시국선언 “박 대통령 퇴진 하라”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 “당시 풀리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결정들 이번에 풀리고 있다” 주장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계 시민단체와 체육인 502명이 시국선언을 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촉구했다.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를 중심으로 한 체육 시민단체들은 7일 오전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체육인 시국선언을 발표하며 “청와대발 최순실 게이트의 몸통인 박근혜 대통령은 스스로 특별검사의 조사를 청하고 국정에서 완전히 손을 떼야 한다고 했다.

또 “검찰은 최순실의 조카이자 전 승마 국가대표였던 장시호와 최순실의 딸 정유라에 대해 즉각 수사해야 하며, 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김종 전 차관 등 최순실의 범행에 가담한 관계자들을 모두 사법처리 하라”고 요구했다.

이어 “검찰은 이관개인 의혹으로 얼룩진 평창동계올림픽 관련 공사에 대한 수사도 착수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행사에는 류태호 체육시민연대 공동대표, 이대택 스포츠문화연구소 소장, 허정훈 중앙대 교수, 최동호 스포츠문화연구소 운영위원 등이 참석했다.

특히 류 대표는 “김종 전 차관에 대한 긴급체포와 수사가 이뤄져야 한다. 그래야 최순실 게이트 사건의 전말을 파악할 수 있다고 본다”고 주장했다.

이 소장도 “스포츠 4대 적결을 빌미로 삼아 김종 전 차관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둘렀다. 또 그를 위시해서 많은 이들의 농간과 조작이 이뤄졌다는 게 명명백백하게 밝혀졌다. 최순실 차관에게 청와대가 개입했다”며 “김 전 차관은 구속 수사를 해야 하고, 책임은 청와대가 져야 한다. 박근혜 대통령은 바로 물러나야 한다”



류태호 교수가 7일 오전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스포츠문화연구소, 체육시민연대 등 체육인들이 주축으로 열린 최순실 게이트로 촉발된 국정 혼란을 둘러싼 시국선언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고 했다.

이들은 또 “2014년 말 70%에 가까운 여론의 지지를 받던 평창동계올림픽 분산개최가 어느 날 ‘분산개최는 없다’는 박 대통령의 한 마디에 없던 일이 되고 말았다”며 “당시 풀리지 않았던 비정상적인 결정들이 이번에 풀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스포츠문화연구소에 따르면, 2014년 12월 국제올림픽위원회(IOC)가 ‘아젠다2020’을 발표하면서 문체부 차원에서 평창올림픽의 분산개최를 고려했다. 문체부와 IOC가 이에 공감했고, 구체적인 안까지 만들어지는 과정이었지만 박 대통령이 2014년 12월15일 수석비서관회의에서 돌연 일방적인 반대 의사를 밝혔다는 주장이다.

최동호 위원은 “문체부가 분산개최안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어디서 올라 온지도 모르는 정보로 어느 날 갑자기 원안(분산개최 불가)대로 간다고 결정을 한 것이다”며 “당시 이 바탕이 어디서 온 것인지 궁금했는데 이제야 공중중이 풀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류 대표는 “현 문체부 장관과 국·실장급 실무자들의 직무를 정지해야 한다. 여러 문건 등 자료에 대한 증거인멸이 이뤄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최순실이라는 퍼즐을 풀기에는 순간 석연치 않은 이유로 낙마한 김진선 조양호 조직위원장의 경질과 수천억 원대의 이권이 걸린 평창동계올림픽 개최회사의 설계변경, 행사 등의 실체가 드러난다”며 “자금의 참담한 사태는 그간 적폐를 도려내지 못하고 방조한 체육인들에게도 책임이 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모욕과 자괴의 참담함을 넘어 새로운 공정스포츠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밝혔다.”



2016 대교는눔 서울초등 축구리그 왕중왕전 결승

2016 전국초등축구리그 왕중왕전의 왕좌에 서울 대동초등학교가 올랐다.

10월 15일부터 11월 5일까지 전주월드컵 보조구장에서 열린 이번대회에서 서울대동초는 결승에서 대전시타전 유소년 클럽팀을 누르고 챔피언이 됐다.

전라북도축구협회 유종의 전무이사는 “2014년 본 협회 임원들과 전주시통합축구협회 임원들이 함께 대회 운영을 진행했던 경험을 바탕으로 조금은 더 매끄럽게 운영되었다. 올해는 예상치 못한 더위로 천연잔디의 상태가 좋지 못해 걱정이 많았는데,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경기를 치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신 학교와 회사 그리고 공단 그라운드 담당자들에게 감사드립니다.”고 말했다.

한편, 도내팀으로는 이리동초등학교 축구단이 8강에 올랐다. /김민근 기자

전국초중고 축구 권역리그 시상식 개최

지난 3일 전라북도체육회관 대회의실에서 2016 전국초중고 축구 권역리그의 시상식이 개최됐다.

2016년도 초중고 축구리그의 각 우승팀으로는 전북한계유소년클럽U12, 이리동초, 동대부속금산중, 광주송이고, 전주공고는 각각의 권역에서 무패로 우승까지 이끌었다.

전북축구협회 소귀현 총무이사는 “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해 경기는 반드시 주말이나 공휴일에 개최하는 것을 원칙으로 진행했으며, 73개의 경기장과 구급차를 사용했고, 인력으로는 감독관 73명, 심판462명, 응급구조사73명, 운영요원 282명이 투입되어 188경기를 치렀다. 리그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일 년 동안 수고해주신 지도자, 선수, 심판 등 경기운영에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리며, 2017년도 리그는 더 나은 환경에서 경기가 진행될 수 있도록 대회 준비에 만전을 다해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김민근기자

한국야구위원회, 내년 FA자격 선수 명단 공시

2017년 FA 자격 선수는 이현승, 김재호, 이원석(이상 두산), 용덕현, 이호준, 조영훈(이상 NC), 봉준근, 우규민, 정성훈(이상 LG), 양현종, 나지완(이상 KIA), 김광현, 김승희(이상 SK), 황재균, 이우민(이상 롯데), 차우찬, 최형우(이상 삼성), 이진영(KT) 등 총 18명이다.

이 중 첫 FA 자격을 얻은 선수는 14명, 재자격 선수는 3명(이호준, 정성훈, 이진영)이다. 이미 FA 자격을 취득했지만 FA 승인 신청을 하지 않고 자격을 유지한 선수는 1명(이원석)이다. 신규 FA 선수 중 이현승, 용덕현, 조영훈, 나지완, 김승희 등 5명은 4년제 대학 졸업 선수로 8시즌 만에 FA 자격을 얻게 됐다.

구단 별로는 두산 NC, LG가 각각 3명씩으로 가장 많다. KIA와 SK, 롯데, 삼성이 각각 2명, kt가 1명이다. 넥센과 한화에는 올해 FA 자격을 획득한 선수가 없다.

이날 공시된 2017년 FA 자격 선수는 공시 후 2일 이내인 11월9일까지 KBO에 FA관리 행사의 승인을 신청해야 한다. /김민근기자

‘승부조작 조직적 은폐’ 야구계 · 팬 패닉

NC 다이노스가 도덕성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2014 KBO리그에서 고의로 볼넷을 던지는 등 승부조작을 한 대가로 금품을 받은 KIA 타이거즈 유창식(24)과 롯데 지이언츠 이성민(27·전 NC) 등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7명과 불법도박자 10명 등 모두 17명을 국민체육진흥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스스로 자신의 잘못을 밝힌 유창식과 달리 이성민의 케이스는 충격적이다. NC가 승부조작 당시 사실을 알고도 이를 조직적으로 은폐하고 해당 선수를 트레이드해 10억원을 챙겼다는 것이다.

전·현직 프로야구 선수 7명 · 불법도박자 등 불구속 입건

KBO 관계자는 “수사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아직 구단의 입장을 지켜보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이게 사실이라면 NC 구단은 엄중경고와 함께 1억원의 제재금이 부과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수사 결과대로라면 해당 선수는 영구제명을 피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성민은 NC 소속이었던 2014년 7월4일 LG 트윈스와 경기에서 1회초 볼넷을 내주는 대가로 30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이성민은 자신의 승부조작 사실을 구단에 털어냈다.

당시 NC는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구단의 이미지가 나빠질 것을 우려해 KBO에 보고하지 않았다. 이후 ‘자질은 우수하나 야구에 대한 진지함이 없고 코치진과 사이가 좋지 않다’는 소문을 낸 후 보호선수 20인에서 제외됐다.

NC는 조직적으로 이성민의 승부조작 사실을 숨기고 2014년 11월28일 신생구단 kt 위즈에서 특별제명을 받게했다. 위험한 선수를 내보내고 트레이드 명목으로 10억원을 받았다.

이성민은 kt에서 단 한 경기에도 출장하지 않았고, 지난해 5월31일 5대4 트레이드 때 롯데 유니폼을 입었다. 롯데로 트레이드 된 당일날 바로 대전 한화전에 뛰었다.

충격적인 건 야구팬들도 마찬가지다. 승부조작에 가담한 선수보다 구단의 행태에 대해 더 놀란다는 반응이다.

프로야구계의 한 관계자는 “선수들은 팔팔 뭉쳐서 찬란 4년 만에 한국시리즈까지 올랐다. 그런데 구단이 매우 어리석은 행동을 했다. 빨리 반성하고 변화된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민근기자

위대한 체·인·지의 시작

태권도원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태권도 교육, 체험, 수련, 문화교류의 장

<http://www.tkdwon.kr>

태권도원 - 우리 세대에 우리가 만든 세계문화유산

올림픽 단일종목으로는 최초로 국제경기, 체험, 수련, 교육, 연구, 교류 등 태권도에 관련된 모든 것이 가능한 세계 유일의 태권도 전문공간입니다.

또한 전 세계인이 태권도를 통해 한국을 느끼고 한국의 일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시대의 살아있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Taekwondowon
THE GREAT CHANGE

태권도원

전북 무주군 설천면 무설로 1482 / 063) 320-0114